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6·25전쟁과 우리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자

란은 1592년에 일어나 1598년에 히데요시가 죽음으로 끝나기까지 7년에 걸친 끔찍한 전쟁이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인민군 12만의 남침으로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12시 정오에 휴전으로 끝난 강산이 초토화된 3년 전쟁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은 6·25전쟁을 잘 모르고 있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 교류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고 전쟁에 의한 적화통일을 하려고 가공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역사는 지나갔지만, 과거를 바로 알고 현실을 바르게 판단해서 과거와 같은 악순환을 없애려면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비참했던 6·25전쟁을 모르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탄압이 심하고 악독한 공산 독재 체제에서 살지 못하고 탈북하는 수많은 탈북자를 보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일부 북한 추종자들을 비판해야 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남한에서 산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6·25 전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가장 비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이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당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고 불법 남침해 무방비 상태의 남한을 휩쓸고 쳐 내려와 경상남도 일부와 제주도만 남기고 점령했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이를 물리쳤으며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써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군이 14만 7천 39명 북한군이 52만 명, UN군이 3만 5천 737명, 중공군이 9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우리의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던 전쟁이다.

유엔은 창설 후 최초로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했으며, 국군과 함께 침략자 북한 공산군을 물리치고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이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함으로써 3년간의 전쟁은 휴전상태로 끝나게 됐다. 우리는 38선 아닌 휴전선으로 남북이 분단돼 6·25전쟁 73주년을 맞이했다.

6·25전쟁은 북한 공산당이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려는 계획적인 전쟁이었으며 전쟁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전쟁으로는 통일할 수 없다는 것과 북한의 공산체제의 허구성을 남한 사람들이 직접 알게 됐으며 북한의 온갖 위장선전에도 남한 주민이 속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됐다.

그동안 북한은 폐쇄된 공산 체제를 유지하려고 세계에서 유일

하게 공산 독재정치와 인권탄압을 하면서 무력 남침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기회만 보고 있으며 휴전선에 남침 땅굴을 파고 바다에서는 어부들을 남치해 갔으며 수많은 남파간첩을 보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남한은 민주국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개발과 경제건설에 힘써 오늘날 세계선진국 대열에 서게 됐으며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통일을 하려고 6·15공동선언에 따라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의 개방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국가로서 통일을 못하고 있으며 6·25전쟁의 비참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70세가 넘는 노령화가 돼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며 전후 세대들은 비참했던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분단과 6·25전쟁의 비참한 역사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과 교육을 맡은 교사들이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후손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이며, 6·25전쟁 73주년을 맞이해 6·25전쟁과 우리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며 해야 할 일이다.

독자기고

## 지속가능한 농업, 발농사 기계화부터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혼자 작업하면 열흘 넘게 걸릴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뉴리더 농협가치향상교육’중 농촌현장 체험에서 나온 얘기다.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교육만 받고 입사한 범농협 MZ세대 신규직원들이 교육대상이다.

특히 2일자 교육프로그램은 특별히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와 가치함양을 위해 농업현장을 찾아 일손을 보태고 있다.

지난주에는 경기 연천군에 있는 농촌마을을 찾아 ‘오미자밭’ 잡초제거 작업을 도왔다.

1천평 가까이 되는 오미자 밭의 잡초들을 일일이 호미로 뽑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잡초가 워낙 무성해서 심어놓은 오미자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심지어 허리높이까지 자란 잡초도 수도룩했으니 말 다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강하게 내리찍는 6월의 땀은 농사일이 서툰 교육생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옹기종기 모여 불 한모금씩 마시며 한마디씩 한다.

“교수님, 이런 작업을 손으로 꼭 해야 하나요? 기계가 해주면 되지 않아요?” 하는 것들이었다.

그렇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MZ세대들에게 단순한 호미질이 이해되지 않을 법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벼 재배의 기계화율은 2021년 99.3%에 달해 일부 방제 작업 외에는 대부분 작업에 기계가 활용되고 있지만 양파(66.3%), 마늘(61.8%), 고추(48.3%) 등 주요 밭작물의 평균 기계화율은 63.3%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논밭의 면적이 거의 반반수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발농사 기계화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다.

농촌의 고령화와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물론 밭작물은 종류와 재배 방식이 다양한 데다 농작업 과정이 복잡해 기계화를 진척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발농사 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발농사 기계화를 제고를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다.

6월 25일은 휴전상태인 남북이 긴장된 상태에서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한 날이다.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설치한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일방적으로 폭파했으며,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447억 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6·15 남북공동선언 23돌을 앞두고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둘이 있으니, 임진왜란과 6·25 전쟁이다. 임진왜



###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GREENFIBROOMEYE

##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